Ⅰ 서론[1)]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며 데이터는 경제, 금융, 의료, IT 등 모든 분야에서 핵심 가치로서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 활용 제도, 역량, 인프라 등은 기업, 산업, 국가 단위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보험업에서도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직접 영위하는 보험 사업을 통해 수집한 내부데이터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외부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IoT 기술의 발달로 웨어러블, 텔레매틱스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하며 해외의 경우 보험회사가 신용, 유통, 의료 등 이종 업종 데이터를 결합·활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이종 업종 외부데이터의 결합·활용 사례가 많지 않다. 보험업에서는 외부데이터 중 특히 개인정보의 활용이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정부는 개정 데이터 3법과 후속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여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외부데이터의 결합·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보험회사는 외부데이터 활용의 첫 걸음으로 공공의료데이터의 사용을 추진 중이다. 보험회사는 공공의료데이터를 통해 내부 경험통계 등에서 제공하지 못하였던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유병자·고령자의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의료데이터를 분석하여 희귀질환 보장 상품을 개발하거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장 확대 및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험회사 등 영리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으며,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 보험회사는 공공의료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본고에서 '정보'와 '데이터'의 의미는 혼용하여 사용함

보험업에서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에는 여전한 제약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보험회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내 제도에 모호성 혹은 미흡함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혹은 제도 외에 사회적 신뢰 등 다른 요인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데이터 활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개선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며, 제도와는 다른 요인이 원인으로 지목된다면 이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본고는 보험회사의 관점에서 내부·외부 등 데이터의 종류를 나누고 그 특징과 이슈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외부데이터 결합·활용을 앞두고 향후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을 해외 선진 보험회사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어서 공공의료데이터에 대한 보험업의 수요가 높은 이유를 정리하고, 우리나라 공공의료데이터의 질적 측면, 이차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현주소, 문제점 등을 국제적인 비교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험업의 외부데이터 활용 사례와 공공의료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본고는 기여점이 있을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보험회사가 활용하는 데이터를 내부데이터 및 외부데이터로 나눠서 각 특징을 소개할 것이다. 특히 외부데이터는 정보주체의 선제적 동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이슈가 존재하여 국내에서는 실질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선진 해외 보험회사가 다양한 외부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하여 향후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외부데이터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알아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외부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논의 과정과 활용 연혁을 살펴보고, 특히 보험업권이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요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의료데이터의 이차적 활용과 관련하여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국내 현황에서는 제도적 특징을 이해한 뒤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 공공의료데이터의 가용성과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몇몇 국가에서는 사회적 신뢰 수준에 따라 의료데이터 활용의 성패가 결정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할 것이다.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데이터의 실질적 활용에 제약이 존재하는 원인을 이해하고 보험회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